

2024 년 9 월 29 일 “(생명의 공동체 7) 함께 기쁨과 눈물을”(롬 12:14-18)

사도 바울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권면한 영적 예배의 모습을(롬 12:1) 살펴보겠습니다.

[1] 참 가치를 드러내는 길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의 형태와 방식으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서로가 통하고 연결된 연대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연대감을 누릴 때 공동체는 생기가 돋고 하나될 수 있습니다. 일 중심일 때보다, 관계와 사람 중심일 때 더욱 풍성한 연대감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바울은 1 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도중하차하자 실망했습니다. 그후, 2 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던 바나바와도 크게 싸우고 결별했습니다(일 중심).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 것 같습니다(딤후 4:11 참고).

함께 한 성도들과 하나되어 서로 통하는 연대감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게 만드는 힘입니다.

[2]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주님을 본으로 삼아

내게 기쁨이 올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때 연결되었음을 느끼고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기쁠 때 기뻐하시고, 슬플 때 울어 주실까요? 아니면 덤덤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무표정하고 근엄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특히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백성들의 희비에 민감하시며 서운해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백성은 풍부한 감정과 정서의 세계를 가지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제자들, 병자들, 눈먼 자들, 상실한 자들...)은 모두 주님의 눈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눈길 속에서 자기들을 향하신 공훈과 배려와 친절과 긍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사랑하라’는 틀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주가 불가능한 곡을 연주하려고 애쓸 때 나오는 소리에 가치를 두었던 스트라빈스키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실행해보려고 애쓰는 노력과 과정이 가치 있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고 향기를 풍길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비록 미숙한 모습일지라도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호감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맺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숭고한 가치 있는 삶의 등불로 인정해 드리고 따르기를 애쓰다면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려고 애쓰는 가운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주님께서 나를 보며 느끼시는 감정이 무엇인지 발견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